

Bicol for Christ
선교편지
2023년 3월



오랜만에 햇빛이 작열합니다. 긴 장마끝에 비추이는 햇살이 너무 반가워 감사하던 것도 잠시 뜨거운 햇빛에 덥다라는 말을 나도 모르게 내 뱉는 저를 보며, 광야에서 늘 불평을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 할 것이 못 되는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런 연약한 저와는 달리 한결 같이 자비와 인내,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사 선교사역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동안의 선교소식을 드립니다.

비콜을 주께로 설립예배

개신교율이 1-2% 남짓 한 이 땅에서 “비콜을 주께로” (비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 하겠다 뜻) 교회를 시작하여 지난 2월에 23 번째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동안 펜데믹으로 흩어져 예배를 드렸던 성도들 400 여명이 함께 모여 23 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일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고, 익산 동산교회에서 제공한 통 돼지 바베큐와 어려운 형편이지만 성도들이 기쁨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나누며 감사하며 서로 축하하며 겪려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콜을 주께로를 이루기까지는 멀고먼 과정으로 고난과 희생이 기본적으로 따르고 무엇보다 지치지 않는 구령의 열정과 비전으로 세워져야만 가능할 사역이니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해 가실때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념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사명을 확인하고, 합심하여 간구하였고, 이어 사명 선언을 하고 흠뻑했습니다.

늘 감사 한 것은 선교사와 함께 예수를 위해 살겠다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 입니다. 선교지 교회답게 교인 대부분이 사역자로 헌신해서 오늘도 주를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힘든 것보다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지 못 하는 것을 죄송해 하며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것이 선교사에게 큰 기쁨이요 보상이요, 감사입니다.

다시한번 사명감으로 모두 외칩니다. “Bicol for Christ”



비콜을 주께로 미션스쿨(BCMA)

코로나 19 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펜데믹이후 온라인 수업에서 부분적 대면 수업으로, 이제는 완전히 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학교에 많은 변화가 생겼 습니다. 무엇보다 기존의 학생들 가운데 일부 학생들이 공립학교로 전학을 간 것입니다. 온라인 수업에 구태여 학비를 내고 사립학교에 다닐 필요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사실 그 동안 저희 학교는 지역에서 인정을 받으며 계속 학생이 들어나는 추세 였는데 이런 이유로 인해 학생 증가세가 주춤하여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학생 숫자가 줄기는 했어도 학급들은 그대로 운영이 되어야 하기에 여전히 교실부족과 시설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학부모들도 점점 우리 학교에 대한 로열티가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되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지역에 유일한 기독교학교, 카톨릭 중상층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로, 교육선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를 양성하는 사명이 막중 한데 이런 지역적인 문제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찌하나 생각만 해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부족한 학교시설이 보완되고, 기독교 명문학교로 더 많은 학생들이 입학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비כול을 주께로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1. 700만 비כול 영혼들이 영적 암흑에서 벗어나 복음적 기독교인들이 되고, 비כול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 되는데 있어 비כול을 주께로 교회가 선교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수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바랑가이(마을) 교회들의 양적부흥과 제자양육을 통해 신실한 제자들로 세워지도록.
 - 평신도 사역자들이 지속적으로 양성되어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가도록.
 - 부산 동노회 남 선교회를 통해 건축되는 비כול을 주께로 비전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토지 용도변경및 허가, 건축비, 건축 인부들을 위해).
2. BCMA (미선스쿨)가 기독교학교로서의 사명 감당과 운영을 위한 물질과 인적 자원을 위해.
 -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새 부지위에 모자라고 낙후된 학교시설을 새로 건축 할수있도록.
 - 지역에 소문난 학교로 모두가 공부하고 싶어하는 명문 기독교 학교가 되도록,
 - 무엇보다 환경 때문에 기독교 학교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3. 복음과 함께 일용한 양식을 채우는 선교교회가 되도록.
4. 선교사가 영육간에 강건하고 늘 성령충만하여 열정있게 사역을 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2023 년 3 월 15 일

비כול에서 이엽광 박소영 선교사 드립니다.